

성탄감사에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누가복음 1:68-71절
+	찬 송	115장/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다함께
	찬 송	123장/다함께
	대 표 기 도	김병진 목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2:25절/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기뻐하여라/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기다림/송성한 목사
	세 례 식	집례자
	찬 송	126장/다함께
	봉 헌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25절/다함께
+	응 답 송	322장(3절)/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순서 : 12월 31일-손조훈 집사/1월 7일-박병민 장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오늘, 구주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주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다(마:23).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셨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이렇다. 우리는 삶을 마감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 서서 심사를 받을 때가 있다. 그때 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한다. 만약 천사장의 위세에 눌려 겸손한 척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왜냐하면 천사장이 지체없이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으니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천국의 법도이다.”라고 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나는 의인이라” 고 말한다면 천사장이 이렇게 다시 물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쭈뼛쭈뼛하며 일기장을 뒤적여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저런 몇 가지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천사장은 우리는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 낼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사장은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이면에 숨겨놓은 추한 동기마저도 끄집어낼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한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임 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저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때 천사장은 우리를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선행과 수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못 사람들은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려고나 절대적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그날이, 성탄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주로 ‘임마누엘’ 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므로 성탄일은 들뜬 축제의 날이기보다는 죄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닌 경건한 예배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있다.

교회소식

1.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새기는 가운데 신앙인의 본질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밤 11시에 성찬식,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과 함께 있습니다. '24년도에 소망하는 신앙의 진보를 위한 결단 2 가지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타임 캡슐에 봉합하여 보관 24년 송년 예배에서 개봉).
4. 24년에 달라지는 교회사역들이 있습니다.
 - 1)수요일 예배가 저녁 7시로 30분 당겨집니다. (24년 1월17일 첫 수요일예배)
 - 2)매달 셋째 주일은 공동체 주일로 예배 후에 각 공동체 예배를 교회에서 각각 드립니다.
 - 3)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매주 화, 수, 목, 금 4일간 5시 50분부터 있습니다. (2024년 1월 9일부터).
5. 24년 한해 교회를 섬길 성도들은 어느 분야든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교회학교 교사, 예배안내, 공동체 인도자, 공동체장,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예배전후 정리 등).
6. 수요일 예배(12월 27일,1월 3일,1월 10일)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님과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12월 DEC

☪교회사역일지

- *12월3일(주일)
대림절 1,
선교회총회
- *12월11일(월)-15일(금)
저녁 기도회
- *12월24일(주일)
성탄주일
- *12월25일(월)
성탄예배, 세례식
- *12월31일(주일)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
(밤11시),성찬식

☪예배시간안내

- *주일예배 1:00pm
- *정년예배 3:00pm
- *유아부 1:00pm
- *아동부 1:00pm
- *중고등부 1:00pm
- *수요일예배 7:30pm

☪예배봉사자

- *예배안내 허영순
- *새신자안내 이기중
-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박제란,김명옥,
박영선,박혜정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태한
- *부목사 서성민
- *부목사 송성한
- *전도사 김양이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12:1-2)

26권 53호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교회창립 1999년7월 18일

갈보리 교회
CALVARY CHURCH

담임목사 이태한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MB 021.968.388

Email.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